

배 포	2021년 5월 14일	페이지	6 페이지
문 의	전시문의 : 최혜경 학예연구사	031-481-7032	
제 목	2021 경기도미술관 교육프로젝트 《몸 짓 말》 보도자료		
자 료	<a href="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lrCxmbBLXr0NB6nSEZoLpPNaol74G2?usp=sharing">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lrCxmbBLXr0NB6nSEZoLpPNaol74G2?usp=sharing</a>		
홈페이지	<a href="https://gmoma.ggcf.kr">https://gmoma.ggcf.kr</a>		

## 2021 경기도미술관 교육프로젝트 《몸 짓 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 2021년 6월 27일까지 경기도미술관 전시 《몸 짓 말》 전시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 운영**
- ▶ 비대면 사회에 발맞추어 **국내 최초 온라인 VR 실시간 도슨팅 프로그램 운영**
- ▶ 《몸 짓 말》 전시 참여작 중 **역사적 퍼포먼스의 재연 진행**
  - 김구림 <도(道)>(1970) : 2021년 5월 19일 11시 : 전문 퍼포머 재연 및 참여
  - 성능경 <신문읽기>(1976) : 2021년 6월 19일 14시 30분 : 일반인 퍼포머와 함께 재연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안미희)은 지난 3월 11일(목)부터 개막한 2021 경기도미술관 교육프로젝트 전시프로그램 《몸 짓 말》과 연계하여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프로그램 운영 스케줄표(L) 참조

□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경기도미술관은 국내 최초로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도슨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은 VR앱에서 작품이 설치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감상하면서, 실시간으로 작품 설명을 듣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VR앱은 작품이 설치된 공간을 3D로 둘러볼 수 있는 파트와 작품의 이미지와 영상을 감상하면서 설명글도 함께 열어 볼 수 있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VR 앱을 통한 전시 도슨팅 프로그램은 전시 종료(2021.06.27.) 이후에도 2021년 11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매주 화-목 오후 3시에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전문 도슨터가 작품을 실시간으로 친절히 설명해 주고, 참여자들의 질문에도 응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실시간 도슨팅 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입장하여 전시를 둘러보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다.

□ 한편 《몸 짓 말》 전시 기간 동안 역사적 퍼포먼스 아트 재연이 이어진다. 지난 3월 31일에는 이건용의 <달팽이 걸음>(1979)이 재연되었고, 석가탄신일인 5월 19일 11시에는 김구림 작가의 <도(道)>(1970)가 재연된다. 작가의 작품설명과 함께 전문 퍼포머가 재연하는 1970년 작품을 2021년 경기도미술관에서 다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 중 사전 관람 신청자 중 현장에서 직접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 6월 19일(토) 오후 2시 30분에는 미술관 로비에서 성능경 작가의 <신문읽기>(1976)가 재연될 예정이다. <신문읽기>(1976)는 2021년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변주되어 선보일 계획이다. 동시대의 다양한 신문 매체를 작가와 함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읽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다. 본 퍼포먼스에 참여 희망자는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https://gmoma.ggc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몸 짓 말> 전시연계 프로그램 일정표

번호	분류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실행시기	운영방식
1	상시	몸 짓 말 탐색	누구나	전시를 관람 후, 내가 생각하는 몸, 짓 말에 대해 적어보는 상시프로그램	2021.3.30. ~ 6.27.	대면
2	상시		누구나	전시를 관람 후, 내가 생각하는 퍼포먼스 아트와 비슷한 문구에 스티커를 붙여보는 상시 프로그램	2021.3.30. ~ 6.27	대면
3	상시	VR 도슨팅 프로그램	성인	앱을 이용하여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 공간을 360도 뷰로 탐색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2021.5.4. ~ 11.19	비대면
4	특별	어린이날 프로그램 손가락으로 그려요	유치 ~ 초등	손가락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프로그램	2021.5.5.	대면 (키트 제공)
5	상설	챌린지 프로그램 움직임 탐색	누구나	노경애 작가의 '출자-/정류장'과 연계하여 서로의 움직임을 탐색해보는 프로그램	2021.5.25. ~ 6.1.8	비대면 (pdf 활동 안내지 제공)
6	상설	활동지 프로그램 몸, 짓, 말	누구나	전시와 연계하여 퍼포먼스 아트에 대해 탐색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활동지로 풀어보는 비대면 프로그램	2021.7.1. ~ 12.31.	비대면 (pdf 활동지 제공)
7	방학	여름방학 프로그램 함께 읽는 그림책	유아 ~ 초등 저학년	초등/유아를 대상으로 현대미술의 장르와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 실시간으로 그림책을 읽고 활동지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2021.7.7. ~ 8.25. * 실시간 그림책 읽기는 매주 수요일 운영	비대면 <b>그림책 읽기</b> : 원격프로그램 사용 <b>창작활동</b> : pdf 활동지 제공

## 2. VR 앱 이미지 및 참여방법




3D 이미지로 둘러보는 전시실 이미지




개별 작품을 설명 듣고 자세히 감상할 수 있는 이미지      전시실 전체를 조망하면서 보고 싶은 작품과 공간을 감상하고 둘러볼 수 있는 이미지

### VR 도슨팅 프로그램

현재 진행 중인 전시 《몸 짓 말》을 VR 앱을 통해서 360도 뷰로 관람하고, '퍼포먼스 아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일정**  
2021.05.04. - 11.19.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3시 (40분 소요)  
단, 공휴일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VR 도슨팅 앱 다운로드 방법>**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EpicMuseum"를 검색하거나 옆에 QR코드를 통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기种的 모바일 기기에서만 참여가능합니다.




경기도미술관 《몸 짓 말》 VR 도슨팅 프로그램 참여방법 안내

### 3. 《몸 짓 말》 퍼포먼스 재연 일정표

순번	퍼포먼스명	작가	일시, 장소	내용
1	도(道)	김구림	2020.05.19.(수) 11:00 경기도미술관 전시실	김구림 작가의 <도(道)>(1970) 퍼포먼스 재연(전문 퍼포머) 및 관객 참여 프로그램
2	신문 읽기	성능경	2020.06.26.(토) 14:30 경기도미술관 로비	성능경 작가의 <신문읽기>(1976)를 작가와 여러 일반인 퍼포머들이 함께 실행하는 변주 퍼포먼스

### 4. 작품 설명

#### 김구림 (b.1936), <도(道)>(1970), 퍼포먼스, 경기도미술관 소장

<도(道)>(1970)는 경복궁(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의 빈 전시실에서 작가가 직접 실행한 작품이다. 당시의 기록사진을 보면 구름을 상징하는 흰 천과 자연을 상징하는 통나무로 좌대를 만들고 작가가 그 위에 올라앉아 세상만사를 초월한 듯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겨 있다. 통나무의 둥근 원은 하늘과 우주를, 흰 천이 만들어내는 사각은 땅을 상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의 상징을 통해 음양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있어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안이 있으면 밖이 있고, 겉이 있으면 속이 있듯이 서로 대립하는 형상이지만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 작품이 초연되던 1970년은 유신정권 시대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어지러웠던 당시의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대한 작가 자신의 마음을 상징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

#### 성능경(b.1944), <신문읽기>(1976), 퍼포먼스, 경기도미술관 소장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작가로서 그의 행적과 작업을 살펴보면, 꾸준히 성실히 그리고 날카롭게 하기질을 이어가고 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는 권력에 대한 저항, 신체 회복의 표현, 일상에 대한 주목이기도 하면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신문:1974.6.1.이후>(1974)는 사회 참여적인 개념미술로 유신시대 신문이 가지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이후 <신문읽기>(1976) 퍼포먼스로 다시 부활하여 유신정권하에서 작가의 사회적 역할과 용기를 보여준 귀중한 작품이다. 당시에 신문은 검열의 대상이었고, 공공공간과 공공의 언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졌다. 이러한 신문의 재편집과, 재편성은 그 신문의 편집자가 가지는 권력을 전도시킨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5. 작품 이미지



도(道), 1970, 퍼포먼스, 경기도미술관 소장

신문읽기, 1976, 퍼포먼스, 경기도미술관 소장